교회예배가 사찰예불보다 더 악한 경우

(열왕기하 24:1~20)

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예배가 사찰예불보다 더 악한 경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예배가 사찰예불보다 더 악한 경우'
먼저 제목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에 대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 볼 때에 사찰예불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찰예불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악하다고 비난조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미몽(迷夢)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조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찰예불에 선한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찰예불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 되심의 유일성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주장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러한 비난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됨은 배타적임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개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적개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본래 불교인이 사찰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에게도 복음

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부합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그러나 세례 받고 교인으로 입적한 자가 사찰예불로 대표되는, 점을 치고 결혼을 할 때에 사주나 궁합을 보는 등의 사교 행위에 참가한다면 용납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적개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25장에서 비느하스가 바알 숭배를 하는 여자와 잠자리에 들었던 남자를 창으로 꿰뚫어 함께 죽여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노를 돌이키셨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교인이 사찰예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이 사찰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악한 행위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굿을 하거나 불상에 대고 예불을 하거나 점을 치는 것보다 더 악한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 이런 예배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확정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 가운데서 그 많은 악행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로 쓰셔서 징계하셨으며, 돌아오는 시늉만 해도 속이 없는 분처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면 버리시기로 확정적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인이 예불에 참가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예배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가 교인이 불상 앞에서 드리는 예불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그렇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선한지 혹은 불상에 드리는 예불보다 악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직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지점이 가까워질수록 물살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급박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시기의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앞장에서부터 언급되었던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만들어진 괴뢰정권의 왕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위가 옮겨져서 유다가 정작 망할 때에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아들 중의 하나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장면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BC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

다.
그런데 이러한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의 1차 침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유다를 전진기지 삼아서 애굽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공략에 실패하게 되고 일단 바벨론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 틈을 타서 속국이었던 상태에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와의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 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이상합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라고 하십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와서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므낫세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앞장에서도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왕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므낫세가 마치 유다의 멸망을 확정짓게 한 장본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므낫세 왕의 영성과 히스기야 왕의 영성을 비교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 므낫세의 특별한 점은 바로 성전의 활성화였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는 각종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 등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지구 위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으로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기존의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던 우상 숭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삼으셔서 침공하게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성전에 무관심하기는 했으나 성전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동안에는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고 인내하시며 책망하시며 꾸짖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성전 안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기존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느라 성전을 도외시하던 자들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전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성전에 악한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제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바깥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로 인해 성전 안에도 우상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성전 자체는 부흥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을 훼파했다는 사실에만 이해가 머무른다면 이 사건을 깊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가 기존의 왕들의 악행에 비해 월등하게 탁월한 점은 성전 바깥의 세상가치에 대한 관심거리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제거되면 선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민은 마음을 세상가치 대신에 하늘가치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어야 배부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민은 그 가치를 하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라고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성전 안에 세상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들여놓음으로서, 성전 안에서도 세상가치를 갖고 살던 자들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는 풍요와 다산으로 지금도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가치의 대표입니다. 지금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69억은 풍요와 다산의 가치에 마음이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것을 추구하는 강력한 방편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서 말해봅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그것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선포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설교를 하면 모든 설교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마음이 세상 가치에 묶여 살던

상태가 더러움과 추악함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모든 예배 자들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만을 절대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럴 때에 앗수르의 2차 침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우선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침묵의 고백을 한 히스기야의 영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교회에서 세상 가치에 묶여있던 마음이 죽고 하늘 가치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됨으로서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를 채택하려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하나님이 최우선 관심의 대상이라는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참 부흥입니다.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되는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충격적 사건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 대상으로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 관심에 찌들고 묶여있고 정복당한 교인들의 마음이 교회를 도외시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으로 멀리 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상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일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불씨를 유지하고 보존하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삶의 현장에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두 손 들고 울고불고 찾아올 때에 십자가를 재현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길을 보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삼백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 열 명만 모일지라도, 그 열 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삼백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오백 명이 와서 예배를 2부로 들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열 명의 교인이 세상의 어떤 충격적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더 우선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더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침묵으로 고백했습니다. 침묵은 곧 눈앞의 사건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민들을 무장시켜 세상으로 보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교회의 자리가 빈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교인이 사찰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일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자식에게 묶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모셔 들이기 위해 이삭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처럼 교회

에서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불보다도 악한 예배이고 예불보다 악한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 불씨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교회로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화롯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맏며느리의 막중한 책임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불씨를 보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존재 의미로서 십자가 복음의 불씨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 얼마나 오느냐 안 오느냐가 목사님들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끄실 일입니다.
화롯불의 불씨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로에 직접 불씨가 닿아서는 안 됩니다. 깔린 재위에 숯불을 놓고 다시 재로 덮어야 불씨가 오래 보존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세상가치에 대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기쁘지 말고 행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확인되는 세상가치로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 가치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가치에 대해 하얗게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복음의 불씨가 예배 안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세상가치로 기뻐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마음속에서 세상 가치는 잿더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 복음의 불씨는 보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서 재현됩니다. 그러면 세상가치에 묶여 살던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제1의 현실로 모셔 들이는 진짜 부흥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므낫세의 부흥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부흥을 보시고 선민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건

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현실화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진짜 교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